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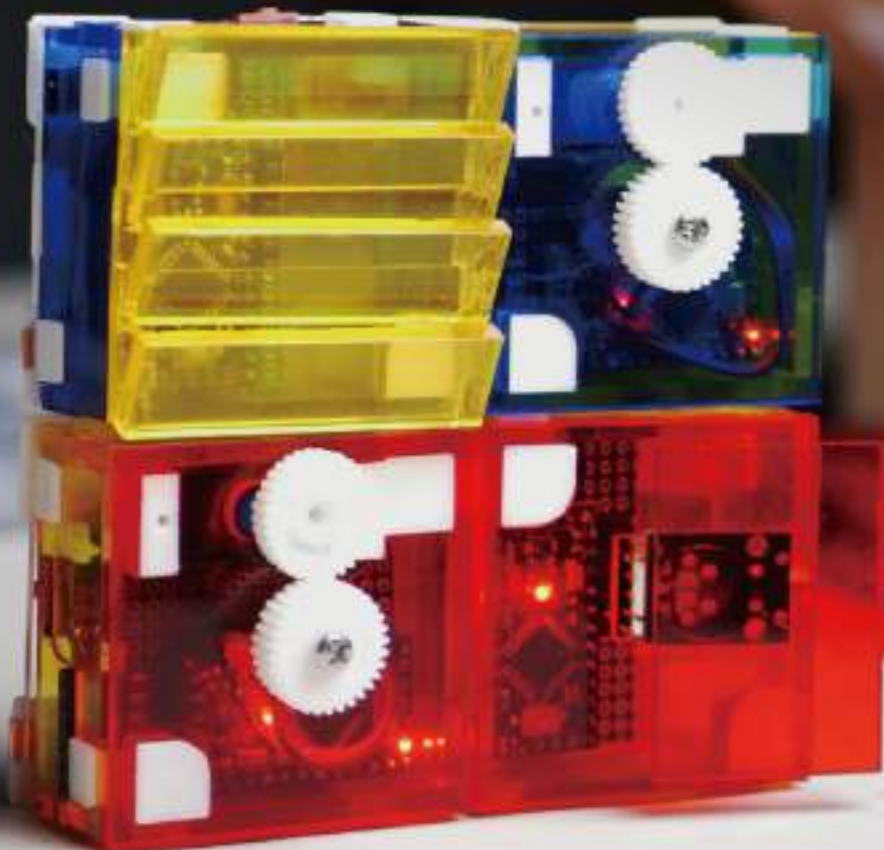
Signal = Fire = Oddly Satisfying = 멍~ 때리기

지금 우리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들은 과거의 봉화(烽火)와 달리 보이지 않고, 심지어 0과 1로 이루어진 나열을 주고 받습니다. 정보는 빠르고 간편하게 전달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를 응용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현대기술은 버튼 몇 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마법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Salmon은 마법과 같은 디지털 세상을 두 손으로 만지고 조립하면서 탐험하는 키트입니다. 랜덤하게 조립된 키트는 어느 순간 특정 패턴을 반복하게 되고, 이는 묘한 만족감을 줍니다. 과거 자연이 그랬고 옛 선조들이 발견한 불이 그랬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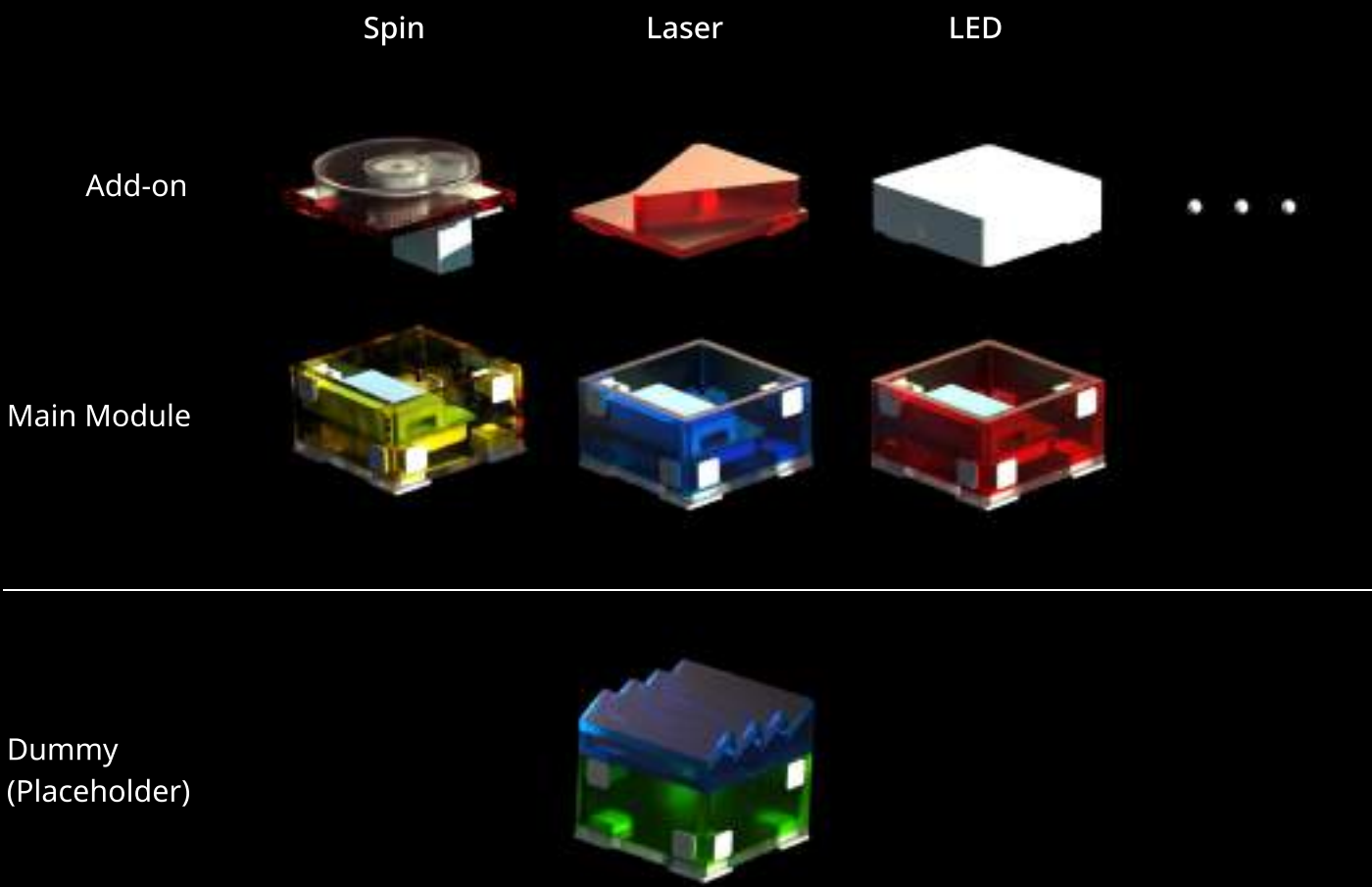
기 간 2021

작업 형태 개인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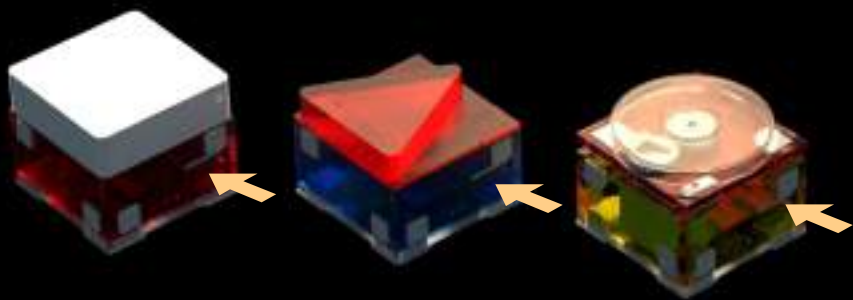
Hardware

Salmon의 모든 키트는 같은 메인 모듈을 공유합니다. 메인 모듈과 Add-on 파트를 조립해 하나의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Upload Code

메인 모듈에 코드를 업로드 시켜 모듈이 어떻게 동작할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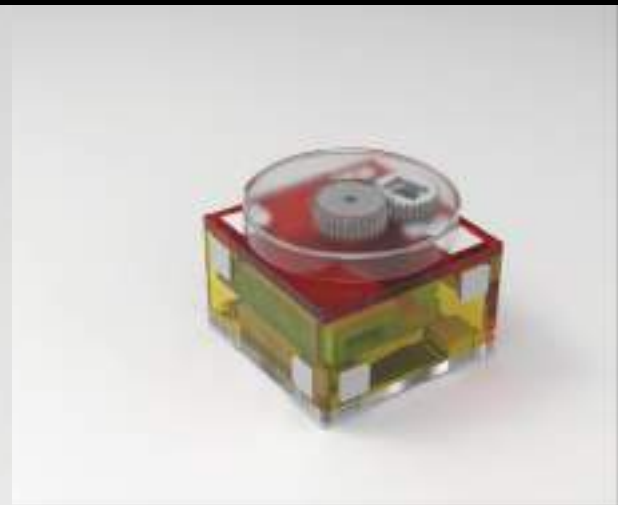


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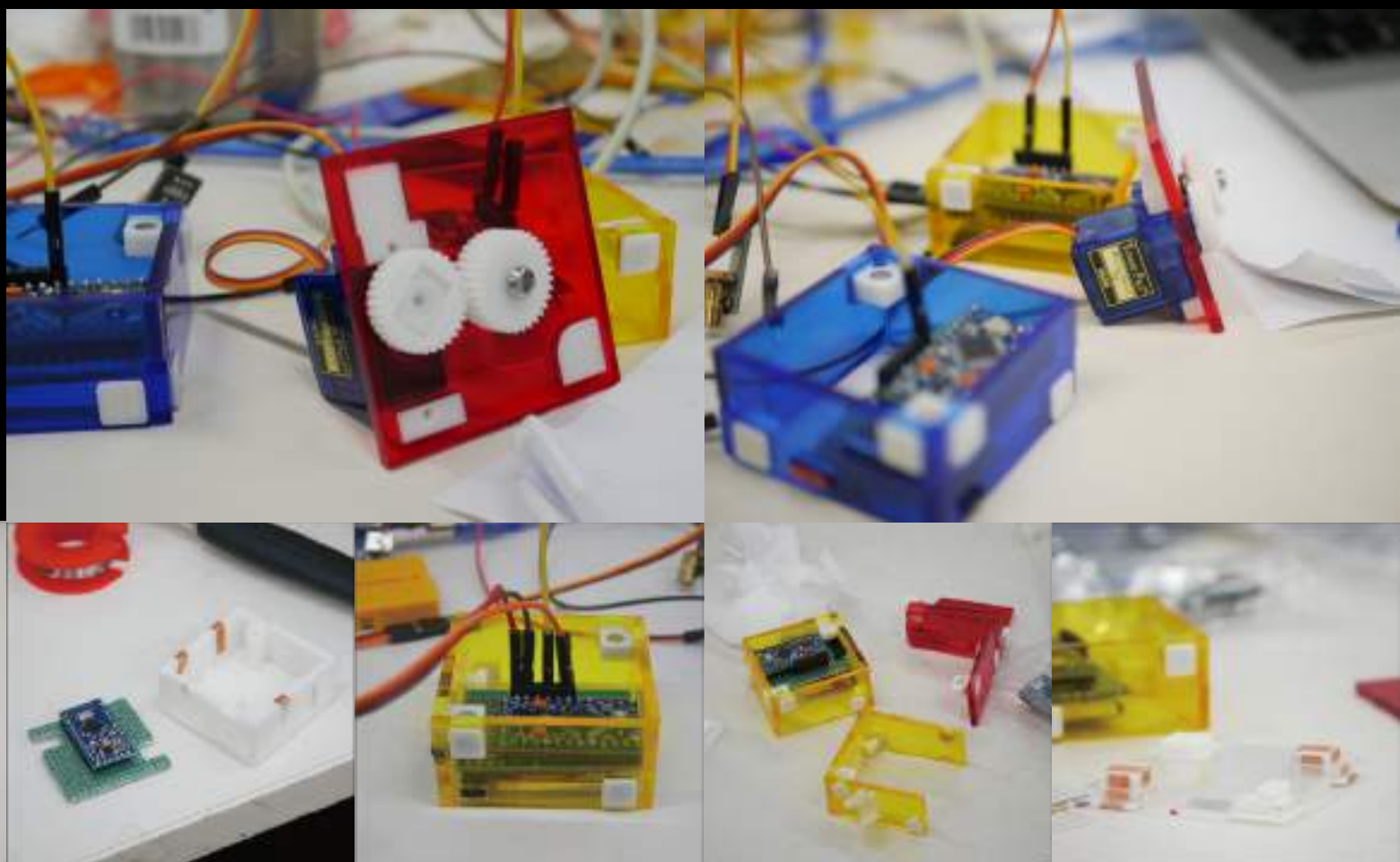
각 모듈은 양 옆의 전극으로 디지털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각 모듈은 메인 모듈에 올라간 코드에 따라 반응합니다.



Rendered model



Prototyping



Working Prototype & Exhibition

